‘이참에 기량 갈고 닦자’

도립국악원, 상반기 국악연수 등 취소… 위탁교육 수강 등으로 역량 강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각종 공연이 취소된 전북도립국악원이 위탁교육 수강으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9일 국악원에 따르면 2020년도 상반기(71기) 국악연수교육을 지난달 3일부터 중단한데 이어, 기획했던 공연들도 대부분 취소했다.

이후 도립국악원 예술 3단은 기량 향상을 위해 외래강사를 정기적으로 초빙해 교육을 받으며 공연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초빙 강사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전수교육조교 곽태규 명인(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원장),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예능 보유자 이애주 명인,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6-1호 전라삼현육각 전태준 명인, 세종국제무용스쿨 성지선 원장 등이다.

관현악단은 표정만방지곡, 중광지곡, 수제천, 동동 등의 파트별 어법과 합주시 앙상블 중심으로 태평소와 단소 교육을 진행했다.

창극단은 캐릭터별 분장법 교육을 통해 작품의 성격에 맞는 캐릭터를 구현하기 위한 메이크업 교육을 받았다.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각종 공연이 취소된 전북도립국악원이 위탁교육 수강으로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무용단은 발레 교육을 받아, 전통무용에 클래식 발레의 미의식과 예술관을 접목해 공연에 응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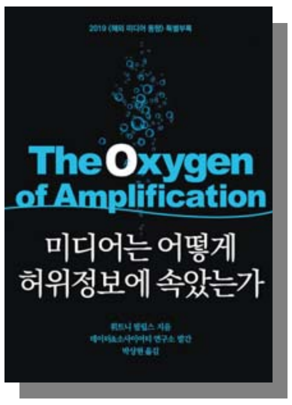
단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연습실에서 모여서 하는 단체연습을 자제하고, 오전·오후로 나눠 파트별 개인연습에 집중하고 있다.

차주하 도립국악원장은 “힘들고 지친 도민들의 정서를 위로해주는 것이 도립국악원의 역할”임을 강조하며 “단원들과 직원들에게 코로나 종식 후 열릴 공연을 위해 부단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성 기자

‘가짜뉴스 범람’ 조명

언론진흥재단, ‘미디어는 어떻게 허위정보에 속았는가’ 발간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일상에서 쉽게로 남용되는 시대를 조명한 책이 나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미디어는 어떻게 허위정보에 속았는가’((원제 The Oxygen of Amplification_Better Practices for Reporting on Extremists, Antagonists, and Manipulators Online)를 발간했다고 9일 전했다.

휘트니 필립스 미국 시라큐스대 조교수가 쓴 이 책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간 전후 일어났던 백인우월주의자들과 음모론, 인터넷 ‘트롤troll’들의 네트워크와 이를 보도하고 증폭시킨 언론의 관계를 분석했다. 언론계 종사자, 연구자, 현대 뉴스 미디어 전문가 50명을 인터뷰한 내용과 기자들과의 대화를 정리했다.

1부 ‘트롤링과 밈 문화, 저널리스트가 회고하는 2016년 미국 대선’이라는 제목의 에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의 온라인 극우세력이 어떻게 여론과 뉴스 미디어를 조작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

2부 ‘기자가 거짓정보를 증폭시키는 모순: 저널리스트들은 어떤 측면에서 자신들이 거짓정보 유통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에서는 기자들이 결국 온라인상의 과격주의자들이나 정보 조작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다룬다.

저자는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진 온라인상의 행위자들로부터 내러티브의 주도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핵심적인 진실을 전달하는 기자들의 능력을 극대화한 성공 사례를 제시한다.

보도 가치를 가늠하는 방법, 사실이 아닌 정보를 보도하는 방법, 집단적인 괴롭힘이나 조직적인 여론 조작 공격을 보도하는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통해 저자는 ‘좋은’ 저널리즘이 지향해야 할 바를 정리해 준다. .

본 간행물은 인쇄본과 PDF로 3월 중 전국 언론인과 미디어 연구자 등에 무료 배포된다. PDF는 재단 홈페이지 미디어정보_정기간행물_해외미디어동향 코너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뉴시스

‘산골친구’ 들아 모여라… 산골영화제, 자원활동가 모집

5월 1일까지… 행사운영 초청·이벤트 지원 등 7개 부문

오는 6월 4~8일 영화 여행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할 할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9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한다.

무주산골영화제 ‘산골친구는 매해 관객 안내 및 응대, 상영관 운영, 행사 지원 등 영화제 현장 곳곳에서 든든한 지원군으로 활약해주고 있다. 제8회째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 나갈 자원활동가 산골친구의 모집 분야로는 행사 운영 지원·상영관 운영 지원·초청 지원·이벤트 지원 등 총 7개 부문으로, 50명 내외의 인원을 최종 선발할예정이다.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는 영화제 전 기간 무주에서 활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9일부터 5월 1일까지 영화제 홈페이지(mjff.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최종 합격자는 5월 13일 이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제8회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하게 될 ‘산골친구’에게는 활동 기간 중 무주 지역 내 숙식 및 영화제 공식 유니폼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또한 전 기간 활동 종료 후 교통비 및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1365 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 봉사 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6월 4~8일 영화 여행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무주산골영화제와 함께 할 할 자원활동가 ‘산골친구’를 9일부터 5월 1일까지 모집한다.

매년 무주산골영화제 관객들의 가장 다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산골친구’ 모집에 영화제를 사랑하는 이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린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고 및 산골친구 담당(063-245-6400) 혹은 이메일 (mujufilmfest@naver.com)에게 문의하면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미술협회 위상 재정립·활성화 헌신 노력”

임영하 부량면장, 미협 김제지부장 당선 소감 밝혀

임영하 부량면장이 지난 7일 한국미술협회 김제지부 정기총회에서 제24대 지부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제미술협회는 김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미술협회 산하 지부로서 1970년 10월 설립 5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미술단체다.

송하영, 나상목, 송성용, 김승학 선생 등을 비롯한 예술의 극치를 이루었던 당대 유명인들이 활발히 활동한 본 무대이기도 하다.

김제미술협회는 앞선 선배들의 발자취 재조명을 통한 긍지와 자부심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을 뿐 아니라 왕성한 활동으로 호남 서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현재도 매년 정기적으로 초대 작가전을 비롯한 한·중교류전, 벽골 미술대전 등 크고 작은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며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임영하 지부장은 “회원간 소통과 화합, 미협의 위상정립, 미협 사업의 활성화,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임기 3년 동안 김제 미협의 괄목한 말한 성장과 발전이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 연중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코로나19 행동수칙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본부